

## (가칭)경기 문화예술 대축제 TF 2차 회의('21.12.23)

### □ \*\*\*\*\*

- 지역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축제를 추진할 때는 정책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타겟팅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됨
- 정책목표는 최고의 축제를 만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지역에서 정책을 펼칠 때 누구를 대상으로 문화기반을 강화해야 하는지 우선 정해야 함
- 생활예술인들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고, 전문예술인이나 청년예술인들에게는 등용하는 문을 만들어주자는 정책목표에 대해 논의해 왔음
- 처음에 기전문화제를 제기했었고 이후 조례를 만들고 문화예술제라고 하다가 문화예술 대축제에서 문화를 빼고 예술대축제로 변천되는 과정이 있었음
- 경기도를 상징하는 콘텐츠 개발에 대한 정책목표를 내려놓고 생활예술인들을 지원하고 문화기반을 확장하는 정책목표로 변경한다면 축제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
- TF 회의에서 문화예술이나 도민을 고려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주시면 이를 토대로 용역을 추진할 것임
- 회의에서 쟁점이 명확히 부각되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었고 원하는 쪽으로 의사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함
- 문화예술 창작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생활예술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무명의 청년들에게 자양분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
-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(장르나 형식 등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펼쳐지는 예술공연축제)과 같은 기능이나 역할을 가지고 생활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청년예술인들이 입문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임

### □ \*\*\*\*\*

- 첫 번째 목표는 경기도를 상징하는 콘텐츠 개발이고 두 번째는 인프라 구축 (50~60억 지원), 세 번째는 경기도민이 어떻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할 것인지인데, 문화적 뿌리가 있어야 오래 지속됨
- 기전문화 키워드는 돈으로 환산하면 수 천억원의 가치가 있으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

화 콘텐츠로 활용해야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음

- 기전문화는 과거의 무형문화재 중심 뿐만 아니라 현대예술도 포함하고 있음
- 경기예술대축제를 구상할 때 문화적 뿌리가 결여된다면 정책이 오래가지 못하여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 있음
- 경기도민의 날과 대축제를 연결하여 10월 18일 전후로 개최해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, 유튜브 채널과 31개 시군의 문화플랫폼을 통해 공유해야 함
- 관광과 연계하여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유명 예술인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,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해 대규모 용역을 통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함
- 다음 회의에서는 문화예술 분야를 도민체전 형식으로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시군을 선정하고 지원할지에 대해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음

□ \*\*\*\*

- 지난 토론회에서는 지역과 문화가 예술과 같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예술만 남았음
- 경기지역을 기반으로 한 도민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인본적인 역량을 미래의 삶과 이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경기도의 문화적 콘텐츠들을 발굴·지원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도 같이 참여하는 축제로 구상했었음
- 문화를 키워드로 넣어야 축제를 경기도 정책으로써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는데, 예술대축제라고 한다면 왜 굳이 도가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김
- 도가 행정의 주체가 되려면 경기의 문화적 콘텐츠를 담아내야만 하고 그것은 반드시 역사성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전이라는 명칭으로 확대시켜야 함
-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콘텐츠 중에 하나는 경기도는 수도의 주변 지역이 아니라 수도를 천년 이상 품어 왔다는 것임
- 품는다는 것은 배태한다는 것이고 발전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도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문화예술 축제를 모색해야 함
- 근대 서양문물이 서울보다 경기도의 서민들에게 먼저 들어왔고 더 보편적으로 일찍 향유되어 왔기 때문에 문화적 발전가능성이 더 큼
- 축제의 장에서 벌어지는 콘텐츠는 과거의 경기, 현재의 문화 콘텐츠, 미래를 꿈꾸는 다양한 예술인들의 아방가르드적인 활동들까지 포함해야 경기도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추구하는 문화적 소양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
- 한 개의 시군이 아닌 여러 개의 시군이 함께 기획하여 한 해는 소리에술을 주제로 어

면 독특한 유적이나 콘텐츠, 해당 문화예술인의 태생기를 다루고 다음 해에는 행위예술, 경관예술로 확대시킬 수 있음

□ \*\*\*\*\*

- 도민들이 좋아하는 축제는 성공한다고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술 소비자인 도민들에게 어떻게 예술향유 기회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
- 생활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은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가족들마저도 예술향유의 경험을 하기보다는 친분 있는 사람의 예술행위를 호감 있게 봐주는 것임
- 도민들은 경기도 예술인들이 하는 공연보다는 좋은 공연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생활 예술인 활동이 도민들에게 예술에 대한 호감을 잃게 만들 수 있음
- 진정한 활성화는 예술소비의 활성화라고 생각하며,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좋은 작품을 많이 발표하여 도민들이 그 작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함
- 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대중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견문을 더 넓힐 수 있음
- 프로그램과 작품을 고르는 것은 예술감독의 안목과 성향에 의존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다른 예술축제와 경쟁을 해야 함
- 예를 들어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의 경우 슬로건을 실험과 도전으로 정하고 항상 수년을 준비한 신작을 발표하며 축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모임
- 지역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며 그것을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함

□ \*\*\*\*\*

- 생활예술인들을 포함해 예술대축제로 모든 장르를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컨셉을 잡아야 함
- 생활예술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을 만든다는 목표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형식의 축제를 만들지 말고 기존의 활성화 된 축제 안에 마을축제 형식을 가미하는 방식이 있음
- 예술대축제의 정책적 목표가 예술의 일상화, 생활화에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면 그 관점에 맞는 축제 양식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함
- 기전문화 콘텐츠에 기반한 새로운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함
- 기전문화가 가지고 있는 유·무형적 가치를 나눠서 정신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예술로

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지역적 기반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정해져야 함

□ \*\*\*\*\*

-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행사가 존재하는 것인지, 행사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끼워 맞추는 것인지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음
- 축제의 키워드와 정책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었고, 기전문화는 어렵고 행사를 구체화시키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키워드가 떨어져 나가게 되었음
- 천년 동안 이어온 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산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지금까지 논의해 온 방식과 완전히 달라짐
- 전문예술인들이 굉장히 예술적 수준이 높은 버라이어티한 행사를 추구해서 도민들에게 문화향유를 제공할 것인지, 생활예술인들의 기반을 다져주는 풀뿌리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해주면 좋겠음

□ \*\*\*\*\*

- 각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확대시키자는 것이며, 한 지역을 지정해서 여러 장르의 예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

□ \*\*\*\*\*

- 제안하신 분들이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잘 다듬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
- 기전문화는 도민들에게 인지도가 낮고 새롭게 알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지역콘텐츠를 활용해야 함
- 예를 들어, DMZ는 평화를 상징, 동부는 팔당지역의 물, 환경, 수자원이고 서부는 바다, 갯벌이 중요하고 남부는 수원화성과 남한산성의 역사가 있음
- 권역별로 행사 자체를 특화된 도시를 만들고 4년마다 돌아가면서 순회 개최한다면 예술가들에게 수년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음
- 행사를 추진하고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도시를 공모를 통해 몇 개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예술 분야 주제를 정하도록 함
- 행사를 진행할 때 행정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지속성을 가지려면 어려운 부분들은 가치를 쳐서 단순화시키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함

- TF 회의에서는 각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 주제별로 바람직한 정책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부적인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함

□ \*\*\*\*

- 지역문화 자원을 발굴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자원들이나 미처 잘 활용하지 못한 부분들을 어떤 에너지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며 그것이 축제로 발현되면 좋겠음
- 대축제를 만들면서 합목적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
- 토너먼트 리그제, 서바이벌 게임 형태의 경연방식으로 예술대축제를 추진한다면 뒤쳐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음